

빈곤계층 양육자의 양육 관련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문제 행동

방경숙¹ · 유혜라² · 현명선³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¹,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², 교수³

Gender-specific Problem Behaviors of School-aged Children according to Parenting Characteristics in Poverty

Bang, Kyungsook¹ · Yoo, Hyera² · Hyun, Myungsun³

¹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³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problem behaviors of school-aged children living in poverty. **Methods:** With a cross-sectional study design,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was utilized to collect data from 190 primary caregivers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in one middle-size city in South Korea. **Results:** Among the children's characteristics, only school performance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problem behaviors and children's age and gender were not associated with problem behaviors. Among the primary caregiv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discipline style, rearing confidence, and concerns for their children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problem behaviors for girls, but not for boys. Parenting attitude was not related to problem behaviors with either girls or boy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arenting characteristics of low income primary caregivers are important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especially for girls and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 rearing, including methods of discipline for both boys and girls, are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Key Words: Child, Child behavior, Parenting, Behavioral disciplin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는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근간으로 가정 밖으로 영역을 넓혀 다른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해나가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이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가정과 학교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러 유형의 행동을 습득하고 발달하는

단계에 있다. 이 시기에 발달하는 행동은 이후의 발달단계에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학령기의 문제 행동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Moon, Park, & Park, 2006). 특히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서 비행이나 공격성, 사회적 부적응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인자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Choi & Choi, 2007).

아동의 행동발달은 부모와의 관계, 특히 부모의 양육 관

주요어: 아동, 아동 행동, 양육, 훈육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yun, Myungsu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an 5, Wonchon-dong, Yeongtong-gu, Suwon 443-721, Korea. Tel: 82-31-219-7014, Fax: 82-31-219-7020, E-mail: mhyun@ajou.ac.kr

- 본 연구는 2008년도 수원시 위탁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This study is supported by Suwon Commission Research funded by Suwon City.

투고일 2010년 8월 25일 / 수정일 1차: 2010년 12월 2일, 2차: 2010년 12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0일

런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과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이나 양육태도, 양육방식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Hong & Lee, 2009; Kim, 2001; Kim & Doh, 2001; Moon et al., 2006).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 중 특히 부모의 훈육방식은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체벌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은 공격성을 학습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행동 발달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때리거나 벌을 주는 등의 체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Oh, Oh, & Kim, 2007).

한편 가정환경은 아동의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행동발달의 위험요인이며, 부모의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Assis, Avanci, de Vasconcellos, & de Oliveira, 2009; Han & Doh, 2008; Kim, 2001). 부모는 경제적 빈곤의 스트레스로 초래된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온정적이거나 효율적인 양육행동을 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하며(Lee, 2004), 자녀의 학업활동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적절한 지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공격적, 파괴적 성향이 많이 발달하고 문제행동 발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Lee & Baik, 1997; Scaramella, Neppl, Ontai, & Conger,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 (2001)의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아의 경우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방식과 여아는 과잉반응적 양육방식과 관련있으며, 반면에 내재화 문제행동은 남아의 경우 과잉반응적 양육방식과 여아는 방임적 양육방식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밖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Ahn & Lee, 2009; Chung, Lee, & Jeon, 2007; Kim & Doh, 2001; Oh et al., 2007).

그동안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행해진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공격적인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방식(Oh et al., 2007),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애착 및 감독(Ahn & Lee, 2009), 문제행동 아동과 정상 아동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 비교(Chung et al.,

2007),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태도(Hong & Lee, 2009) 연구 등으로 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단편적인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들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Chung et al., 2007), 빈곤계층 학령기 아동의 경우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태도 등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계층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자의 양육 관련 특성들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빈곤계층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계층의 양육자의 양육 관련 특성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를 파악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다.
- 아동의 특성(연령, 학업성적)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다.
- 대상자의 양육 관련 특성(주 양육자, 훈육방식, 양육에 대한 자신감, 양육태도, 아동에 대한 관심)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한다.

3. 용어정의

1) 문제행동

아동의 행동문제란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으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괴롭히는 부적응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Oh, Lee, Hong과 Ha (1997)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성 있는 행동이 많음을 의미하며, 위축,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을 나타내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비행과 공격성을 나타내는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빈곤계층의 주 양육자의 양육 관련 특성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는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1개 시의 2개 동에 거주하는 빈곤계층 가구 중 학령기 아동을 둔 주 양육자였다. 빈곤계층의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차상위 계층으로서 공공기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가구를 말한다. 빈곤계층에 속하는 대상자는 총 287명이었으며 그 중 학령기 아동을 둔 190명(남아: 104명, 여아 86명)이 본 연구대상자였다.

3. 연구도구

1) 아동 문제 행동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BCL)를 Oh 등(199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사용하여 주 양육자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도구는 3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런 편이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위축 9문항, 신체증상 9문항, 우울/불안 14문항을 합한 31문항(1개 문항은 위축과 우울 및 불안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음)에 대한 점수는 내재화 문제행동을, 비행 13문항과 공격성 20문항을 합한 33문항에 대한 점수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Kwon, Kim, Ahn과 Lee (200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은 .82, 외현화 문제행동은 .81이었다.

2) 양육 관련 특성

(1) 훈육방식

양육자의 훈육방식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언성 높여 화낸다',

'때린다', '때리지 않고 다른 벌을 준다', '내버려둔다', '타이른다'의 각각의 항목에 대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때때로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안함'으로, 때때로 사용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함'으로 분류하였다.

(2) 양육 자신감

양육자의 양육 자신감은 '현재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1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약간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못하다',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양육태도

양육자의 양육태도는 Lee, Yang과 Kim (2004)이 위스타트 사업의 기초조사를 위해 문헌을 토대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아동에 대한 친밀도, 민감성, 반응성, 분노조절, 훈육방법 등 전반적인 양육태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ong과 Lee (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4) 아동에 대한 관심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Lee 등(2004)이 개발한 것으로, 자녀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파악 정도와 대화 형태를 물어보는 것으로 8개 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ong과 Lee (200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일개 시에서 빈곤계층 아동대상 사업을 위한 요구도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의 일부이다. 우선 본 연구진이 해당 2개 동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빈곤계층의 기준에 해당되며,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명단을 받았다. 그 후 연구원이 각 가정으로 전화하여 연구목적 설명하였으며, 연구원의 방문과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가정을 방문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였으며, 연구원이 각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이며, 설문지 응답 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지를 주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응답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heffe's test로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자녀에서 남아는 54.7% (104명), 여아는 45.3% (86명)로 남아가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9.5세였다. 주 양육자는 어머니 69.5% (132명), 아버지 2% (38명), 조부모 6.8% (13명)였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9.5% (94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 11.6% (22명), 초등졸 10% (19명)였으며, 무응답이 22.6%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이 41.8세였으며, 한달 수입은 81.2만원이었다(Table 1).

2. 아동의 문제행동

대상자가 보고한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은 남아가 평균이 5.2점, 여아는 5.6점이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아가 평균이 5.4점, 여아는 6.1점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45$, $p=.656$; $t=0.91$, $p=.364$) (Table 2).

3. 아동의 특성(연령, 학업성적)에 따른 문제행동의 성별 비교

아동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아, 여아 모두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남아의 경우 저학년은 평균 4.9점, 고학년은 5.5점이었으며($t=-0.48$, $p=.634$), 여아는 저학년 5.0점, 고학년 6.4점이었었다($t=-0.99$, $p=.323$).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아의 경우 저학년은 평균 5.5점, 고학년은 5.3점이었으며($t=0.17$, $p=.864$), 여아는 저학년 5.5점, 고학년 6.9점이었었다($t=-1.10$, $p=.278$). 또한 아동의 학업성적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1.38$, $p=.251$),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Variable	Categories	n (%)	M±SD	Range
Child's gender	Boy Girl	104 (54.7) 86 (45.3)		
Child's age			9.5±1.62	6~12
Primary caregiver	Mother Father Grandparent Other	132 (69.5) 38 (2.0) 13 (6.8) 7 (3.7)		
Primary caregivers's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No response	19 (10.0) 22 (11.6) 94 (49.5) 12 (6.3) 43 (22.6)		
Primary caregivers's age			41.8±9.97	22~86
Monthly family income (10,000 won)			81.2±55.46	0~300

부를 아주 못하는 아동(11.0 ± 8.94)이 보통 이상(4.1 ± 4.10)이거나 아주 잘하는 아동(3.3 ± 3.4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32, p=.014$). 반면에 여아의 경우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아동($12.5 \pm 8.75; 14.0 \pm 6.70$)이 성적이 보통($4.3 \pm 5.51; 5.3 \pm 4.65$), 보통 이상($6.1 \pm 7.68; 5.2 \pm 4.88$), 아주 잘하는 아동($4.5 \pm 4.58; 4.2 \pm 4.67$)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97, p=.025; F=5.78, p<.001$) (Table 3).

4. 대상자의 양육 관련 특성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성별 비교

1) 주 양육자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남녀 비교

주 양육자는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또는 기타 친척이었으며, 이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아는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64, p=.054; F=2.37, p=.076$). 반면에 여아는 양육자

가 기타인 경우(13.0 ± 13.39)가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2.00 ± 1.58)보다 내재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며($F=2.75, p=.048$), 외현화 문제행동은 양육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05, p=.378$) (Table 4).

2) 대상자의 훈육방식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성별 비교

대상자의 훈육방식(언성 높여 화냄, 때림, 벌을 줌, 내버려둠, 타이름)에 따른 남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언성 높여 화내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t=-3.95, p=.001; t=-4.13, p<.001$). 또한 때리는 경우와 내버려두는 훈육방식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t=-2.19, p=.039; t=-2.21, p=.034$) (Table 4).

3) 대상자의 양육 자신감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성별 비교

대상자의 양육 자신감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Table 2.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Children's Gender

(N=190)

Variable	Categories	Internalizing behavior			Externalizing behavior		
		M±SD	t	p	M±SD	t	p
Gender	Boy (n=104)	5.2±5.87	0.45	.656	5.4±5.50	0.91	.364
	Girl (n=86)	5.6±6.44			6.1±5.57		

Table 3.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Children's General Characteristics

(N=190)

Variables			Internalizing behavior		Externalizing behavior	
			M±SD	t or F (p) Post hoc	M±SD	t or F (p) Post hoc
Boys	Grade	1~3 (n=46)	4.9±5.74	-0.48 (.634)	5.5±5.99	0.17 (.864)
		4~6 (n=58)	5.5±6.01		5.3±5.18	
Girls	Grade	1~3 (n=48)	5.0±6.05	-0.99 (.323)	5.5±4.55	-1.10 (.278)
		4~6 (n=38)	6.4±6.86		6.9±6.62	
Boys	Academic performance	Very poor ^a (n=8)	8.4±8.68	1.38 (.251)	11.0±8.94	3.32 (.014) a > d, e
		Under average ^b (n=17)	3.8±3.89		4.6±4.07	
		Average ^c (n=38)	6.2±6.97		6.1±6.04	
		Upper average ^d (n=24)	4.4±4.99		4.1±4.10	
		Very good ^e (n=14)	3.8±3.89		3.3±3.43	
Girls	Academic performance	Very poor ^a (n=10)	12.5±8.75	2.97 (.025) a > c	14.0±6.70	5.78 (<.001) a > c, d, e
		Under average ^b (n=10)	5.2±3.35		6.9±5.43	
		Average ^c (n=34)	4.3±5.51		5.3±4.65	
		Upper average ^d (n=19)	6.1±7.68		5.2±4.88	
		Very good ^e (n=12)	4.5±4.58		4.2±4.67	

Note. Missing cases are excluded.

분석하기 위해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F=1.19, p=.318$; $F=1.53, p=.211$), 여아는 양육 자

신감이 매우 떨어진 집단에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F=5.61, p=.002$; $F=4.10, p=.010$) (Table 4).

Table 4.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Caregiv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N=190)

Variable	Categories	Division	Internalizing behavior		Externalizing behavior	
			M \pm SD	t or F (p) post hoc	M \pm SD	t or F (p) post hoc
Boys	Caregiver	Mother (n=73)	5.9 \pm 6.14	2.64 (.054)	5.6 \pm 5.48	2.37 (.076)
		Father (n=20)	3.1 \pm 4.40		4.9 \pm 4.81	
		Grandparent (n=8)	1.9 \pm 1.77		3.0 \pm 1.82	
		Others (n=3)	9.7 \pm 8.39		12.3 \pm 11.02	
Girls	Caregiver	Mother (n=59)	5.1 \pm 5.74	2.75 (.048) c < d	5.7 \pm 5.26	1.05 (.378)
		Father (n=18)	6.8 \pm 6.47		8.3 \pm 7.15	
		Grandparent (n=5)	2.0 \pm 1.58		4.0 \pm 3.08	
		Others (n=4)	13.0 \pm 13.39		6.5 \pm 5.57	
Boys	Discipline style	Yelling & angry	No (n=14)	0.25 (.805)	6.6 \pm 5.94	0.73 (.470)
			Yes (n=75)		5.4 \pm 5.58	
		Spanking	No (n=52)	0.02 (.981)	5.0 \pm 4.86	-0.84 (.404)
			Yes (n=33)		6.0 \pm 6.04	
		Punishment	No (n=27)	-1.17 (.246)	4.2 \pm 3.75	-1.19 (.236)
			Yes (n=59)		5.7 \pm 5.75	
		Indifference	No (n=61)	-1.28 (.217)	5.1 \pm 4.89	-1.31 (.208)
			Yes (n=16)		8.1 \pm 8.51	
		Admonish	No (n=10)	-0.43 (.670)	6.4 \pm 7.11	0.79 (.429)
			Yes (n=84)		5.0 \pm 4.95	
Girls	Discipline style	Yelling & angry	No (n=5)	-3.95 (.001)	3.2 \pm 0.84	-4.13 (< .001)
			Yes (n=71)		6.4 \pm 5.63	
		Spanking	No (n=42)	-1.50 (.139)	5.0 \pm 4.98	-2.19 (.039)
			Yes (n=30)		7.8 \pm 5.81	
		Punishment	No (n=29)	-0.62 (.538)	4.8 \pm 4.99	-1.77 (.081)
			Yes (n=45)		7.1 \pm 5.94	
		Indifference	No (n=38)	0.35 (.727)	4.6 \pm 4.17	-2.21 (.034)
			Yes (n=24)		8.1 \pm 6.97	
		Admonish	No (n=2)	1.49 (.139)	8.0 \pm 5.66	0.43 (.669)
			Yes (n=71)		6.3 \pm 5.65	
Boys	Child rearing confidence	Strongly agree ^a (n=22)	5.1 \pm 5.93	1.19 (.318)	3.6 \pm 3.58	1.53 (.211)
		Partially agree ^b (n=78)	4.0 \pm 5.43		4.6 \pm 4.86	
		Partially disagree ^c (n=78)	6.5 \pm 6.22		6.7 \pm 6.61	
		Strongly disagree ^d (n=12)	5.3 \pm 5.87		4.7 \pm 3.20	
Girls	Child rearing confidence	Strongly agree ^a (n=22)	2.3 \pm 2.50	5.61 (.002) a, b, c < d	3.0 \pm 2.29	4.10 (.010) a, b < d
		Partially agree ^b (n=78)	4.7 \pm 5.02		5.3 \pm 4.71	
		Partially disagree ^c (n=78)	6.3 \pm 6.98		7.0 \pm 5.78	
		Strongly disagree ^d (n=12)	16.3 \pm 9.07		13.3 \pm 9.50	

Note. Missing cases are excluded.

4) 대상자의 양육태도 및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성별 비교

대상자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아동에 대한 관심 정도와 남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r=.01, p=.963$; $r=-.13, p=.224$), 여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r=-.29, p=.011$; $r=-.40, p<.001$) (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빈곤계층 양육자의 양육 관련 특성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계층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Bang (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일반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Oh 등(200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과 Doh (2001), Liu 등(1999)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다고 보고하여, 아동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가 빈곤계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차이에 대해 Kim (2001)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동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 값이 남아와 여아 모두 고학년인 경우 높았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아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여아는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점수가 높아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빈곤계층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Bang (2009)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 유사하였다. 한편 일반계층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iu 등(1999)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Liu 등(1999)은 아동의 연령이 많아지면서 외현화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아동이 성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고학년으로 될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대처행동의 발달을 반영하는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여아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내재화, 외현화 문제 행동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의 발달 양상의 차이가 있어 이와 관련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학업성적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는 학업성적이 낮은 남아에게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여아에게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계층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yun, Nam, & Kong, 2001; Kim, Kim, Kong, Kim, & Seo, 1998)에서도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학령기 아동에게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이 시기에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Hyun et al., 2001),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거나 학교생활이 싫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에게 문제행동이 높다고 보고하여(Kim et al., 1998)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able 5. Correlation Associ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 Concern for Their Child,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N=190)

Variables	Parenting attitude		Concern for their children	
	Boys (n=104)	Girls (n=86)	Boys (n=104)	Girls (n=86)
	r (p)	r (p)	r (p)	r (p)
Internalizing behaviors	.03 (.808)	-.20 (.073)	.01 (.963)	-.29 (.011)
Externalizing behaviors	-.01 (.936)	-.21 (.069)	-.13 (.224)	-.40 (<.001)

주 양육자가(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친척인 경우, 여아에게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Hyun 등(2001)의 연구에서 부모의 이혼 등 결손가정인 경우 문제행동이 높았으며, Nam, Cho Chung, Hyun과 Noh (2006)의 연구에서도 가족 기능이 낮은 경우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높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이에 문제행동을 많이 행하는 아동의 가족기능과 결손가정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훈육방식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아는 모든 훈육방식에서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 언성 높여 화내는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대상자 아동에게 내재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때리는 경우와 방임하는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빈곤계층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Bordin 등(2009)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체벌 훈육방식을 하는 경우 여아에게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Bordin 등(2009)은 여아가 부모의 부정적인 훈육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 여아의 정서적인 면에서의 취약성과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빈곤계층의 경우 양육자는 가정에서나 외부에서 다양한 활동과 책임으로 역할이 과중하여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감소되어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입장에서 부모가 언성을 높이거나 체벌과 같은 훈육행위를 하는 경우 자신을 거절하는 것으로 인지하며 이에 부모에게 가진 분노나 좌절감 등의 감정을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빈곤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Oh와 Moon (2006)의 연구에서는 빈곤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자녀 구타, 부부간 폭력, 부부 갈등의 가족위험요인을 매개로 하여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아보다는 여아의 경우 가정의 정서적 환경과 양육자의 훈육방식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자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양상의 차이에 대해 Kim (2001)은 부모가 가진 성 고정관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즉 남아의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범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방임적인 훈육 경향을 보이는 반면, 여아의 외현화 행동은 사회적 규범에 위배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 좀 더 과잉반응적 훈육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아동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훈육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양육 자신감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아는 양육 자신감이 낮은 대상자 아동에게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비교하지 않았지만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Hill & Bush, 2001; Lasky & Cartwright-Hatton, 2009)에서도 양육 자신감이 낮은 경우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Hill과 Bush (2001)는 양육 자신감이 있는 부모는 효율적인 양육기술을 획득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양육 자신감이 낮은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 발달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어, 부모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효능감 향상에 관심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한 Kwon 등(2005)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 관련이 높았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Kwon 등(200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심리적인 안정도와 경제적인 요인 등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 관련성이 없었지만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에 관심이 요구되며, 경제적인 상황과 양육태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에는 남아의 경우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계층의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Galambos, Barker와 Almeida (2003)의 연구에서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심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된 것과 다른 경향을 보였으나, 일반계층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 (2001)의 연구에서는 여아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여 일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관심이 지나쳐 아동을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Galambos et al., 2003)하고 있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적절한 부모의 관심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빈곤계층 양육자의 양육 관련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남아는 양육자의 양육 관련 특성에 따라 받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아의 경우 훈육방식이나 양육자의 관심, 태도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경제 상태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으로 남아보다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는 학령기 여아가 가정형편이나 양육자의 훈육방식을 통해 전달되는 정서적인 환경의 특성에 더욱 민감한 성향과 관련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빈곤한 상황이지만 따뜻한 관심과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통해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관심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는 빈곤계층의 주 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 관련 특성에 따라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여아, 남아 모두 문제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업성취에 따라서는 남아, 여아 모두 일부 문제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남아보다는 여아의 문제행동이 양육자의 양육 관련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여아에게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훈육방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육자의 양육 자신감이나 아동에 대한 관심도 또한 여아의 문제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로써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중재가 필요하며,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양육자의 적절한 관심도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인과적인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인 빈곤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부모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쳐 양육에 대한 태도나 훈육방식에도 영향을 주기에 부모의 불안이나 스트레스에 따른 양육태도나 훈육방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의 발달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인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넷째,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나 아동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hn, H. W., & Lee, J. Y. (2009).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tress an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Studies*, 30, 77-88.
- Assis, S. G., Avanci, J. Q., de Vasconcellos, & de Oliveira, R. V. (2009). Socioeconomic inequalities and child mental health. *Review of Saude Publication*, 43(Suppl 1), 92-100.
- Bang, K. S. (2009).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and relating factors in poverty group.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 321-328.
- Bordin, I. A., Duarte, C. S., Peres, C. A., Nascimento, R., Curto, B. M., & Paula, C. S. (2009). Severe physical punishment: Risk of mental health problems for poor urban children in Brazil. *Bulletin World Health Organization*, 87, 336-344.
- Chung, M. J., Lee, M., & Jeon, Y. J. (2007). Clinical and normal children with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ifferences in demographic and functional family variab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8, 251-265.
- Choi, Y. J., & Choi, S. B. (2007).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Home Economics*, 45, 75-89.
- Galambos, N. L., Barker, E. T., & Almeida, D. M. (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 578-594.
- Han, H. A., & Doh, H. S. (2008).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Studies*, 29, 87-101.
- Hill, N. E., & Bush, K. R. (200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environment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954-966.
- Hong, S. H., & Lee, S. Y. (2009). The impact of childrearing stress of primary childrearsers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child neglect and communication between primary childrearsers an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8, 137-

169.

- Hyun, M. S., Nam, K. A., & Kong, S. S. (2001).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xual development and problem behavior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 533-547.
- Kim, H. J. (2001).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parenting style: Does gender socialization matter?.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2), 81-95.
- Kim, M. J., & Doh, H. S. (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f agg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Studies*, 22, 149-166.
- Kim, S., Kim, S., Kong, S. S., Kim, M. A., & Seo, M. (1998). Behavior problems, self-esteem, social skills, and depression in middle school mal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7, 273-282.
- Kwon, M., Kim, H., Ahn, H., & Lee, J. (2005).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problem conduct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1, 132-141.
- Laskey, B. J., & Cartwright-Hatton, S. (2009). Parental discipline behaviors and beliefs about their child: Associations with child internalizing and mediation relationship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5, 717-727.
- Lee, K. H. (2004). The effect of poverty and parental behavior for predicting high level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Studies*, 25(5), 1-9.
- Lee, J., Y., & Baik, J. J. (1997). The relation betwee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family and maladaptation behavior that perceived by the children of low income family. *Sook-Myung Journal of Science for Better Living*, 12, 71-93.
- Lee, B. J., Yang, S., & Kim, M. S. (2004). *Need assessment and support of welfare, education, and health need for 'We Start Kyounggi Do' area*. Suwon: Gyeonggi-do Office,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 Liu, X., Kurita, H., Guo, C., Miyake, Y., Ze, J., & Cao, H. (1999).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mong Chinese children aged 6-11.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708-715.
- Moon, Y. S., Park, I. S., & Park, Y. O. (2006). Prediction model of child behavioral problems in the school 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2, 514-522.
- Nam, K. A., Cho Chung, H. I., Hyun, M. S., & Noh, C. H. (2006). A correlation study among family function, occurrence and perceived seriousness of problem behaviors for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161-169.
- Oh, K. J., Lee, H. L., Hong, K. Y., & Ha, W. H. (1997).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Seoul: Chungang Aptitude Publication.
- Oh, K. J., & Moon, K. J. (2006). Pover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and parent-child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59-76.
- Oh, H. O., Oh, S. Y., & Kim, Y. H. (2007). Mother's characteristics, disciplinary methods, & young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ssociated with young children's aggr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Home Economics*, 45(2), 1-22.
- Scaramellam, L. V., Neppl, T. K., Ontai, L. L., & Conger, R. D. (2008). Consequence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across three generation: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725-733.